

【논문】

신해혁명 이후 일본 언론의 宣統帝 관련 보도 경향: 1912-1924

정세련*

차례

- I. 서론
- II. “이용 가능한 권위”: 1912-1917
- III. “潛龍”: 1917-1924
- IV. 결론

국문초록

1924년 출궁 이후 선통제와 청조 유신들은 대외행사 참석, 기부 및 자선 사업 진행 등의 활동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출궁 이후 대내외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선통제가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선통제가 혁명 이후 대내외적으로 그 존재감을 상실하였다면 이는 시행하기 어려운 방책이었다. 혁명 종결 이후 중화민국 체제로의 변환은 이미 완수되었으나, 선통제의 행적에 대한 중국 및 해외 언론의 보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미루어 볼 때, 1920년대 선통제의 홍보 전략은 이미 이전 시기 언론에서 형성된 선통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또는 모종의 해석을 이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아울러 일본 역시 선통제가 지닌 기존의 대내외적인 이미지가 적어도 부정적이지 않았던 점을 만주국의 수반을 결정할 당시에 고려하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비록 명목상의 존재라 할지라도 전왕조의 황제에 대한 중국 내 언론의 관심은 일견 당연할지도 모르겠으나, 직접 당사자가

*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강사.

아닌 일본 언론의 관심은 이후 만주국 황제로 선통제가 옹립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당시 선통제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를 두 시기로 나누어 그 경향성과 시각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장훈의 복벽 시도를 기점으로 하여 1912년-1917년 당시의 언론 보도와 복벽 실패 이후 풍옥상의 정변으로 존호가 폐지되고 공식적으로 “廢帝”로 칭해지게 된 1917년-1924년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선통제, 『朝日新聞』, 『讀賣新聞』, 언론 보도

I. 서론

1924년 출궁 이후 선통제와 청조 유신들은 대외행사 참석, 기부 및 자선 사업 진행 등의 활동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출궁 이후 대내외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선통제가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선통제가 혁명 이후 대내외적으로 그 존재감을 상실하였다면 이는 시행하기 어려운 방책이었다. 혁명 종결 이후 중화민국 체제로의 변환은 이미 완수되었으나, 선통제의 행적에 대한 중국 및 해외 언론의 보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만약 언론 보도를 통해 선통제가 혁명 이후 모든 정치적 실권을 상실하고 단순히 “廢帝”이자 자금성에 고립된 존재로 일반에 각인되었다면, 출궁 이후에도 선통제가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되었을까? 이로 미루어 볼 때, 1920년대 선통제의 홍보 전략은 이전 시기에 이미 언론에서 형성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또는 모종의 해석을 이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정치 경험과 지역적 기반,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선통제로서는 자신을 최대한 긍정적인 존재로 이미지화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당수는 기존에 형성된 이미지를 일시에 무너뜨리고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할 수 있는 것

은 언론이었다. 출궁 이후 선통제가 일본 조계지로 거처를 옮기는 등 그의 행보가 일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 이전에 일본에서 선통제가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야 한다.

아울러 일본 언론이 선통제를 보도 대상으로 삼은 의도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 일본 언론은 혁명 당시부터 중국의 정치적 동향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혁명 직후 공화제 도입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입헌군주제의 당위성과 우월성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현지에서 일어나는 공화제의 단점 혹은 혼란을 제시하고 그 대안으로서 입헌군주제로의 변경을 논해야 했다. 그리고 군주로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존재는 『關於大清皇帝辭位之後優待之條件』(이하 “우대조건”) 하에서 존재하고 있던 선통제였다. 이에 일본 언론은 중국 내부의 혼란과 분열을 부각하고 강유위 등의 복벽론에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두 차례 복벽의 실패 이후 현실적으로 중국이 입헌군주제로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도 선통제는 여전히 중국 정치 권력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묘사되었다. 上海遺老, 靑島遺老 등 청조의 유신 역시 지속적으로 일본 언론에 기고문을 투고하여 선통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선통제가 권력에서 멀어질수록 보도의 논조는 정치적 잠룡에서 단순한 가십거리로 변화해갔다. 본고는 이에 착안하여 일본 언론이 선통제를 보도한 목적과 방식이 변화해가는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32년(쇼와 7년) 7월 도쿄에서 출판된 단행본 『執政溥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인 우치야마 슌(内山舜)은 「序」에서 본인이 『도쿄아사히신문』 조사부에 재직하고 있으며, 여러 서적과 자료를 정리하여 해당 서적을 저술하였음을 밝혔다.¹⁾ 저술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참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저자의 소속과, 문고본 형태로 개략적인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출판 시기가 만주국 출범 직후라 저술에 오랜 시간

1) 内山舜, 1932, 『執政溥儀』, 東京: 先進社, 2쪽.

이 소요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상당수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아사히신문』에 근거하였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특히 만주사변 이전 선통제의 행적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일시가 기재된 부분은 신문 기사를 참고하였을 것이라 추정 가능하다.²⁾ 일본 언론의 기사 보도는 당대로 끝나지 않고 다른 출판물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당시 선통제에 대한 일본 언론 중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두 시기로 나누어 그 경향성과 시각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장훈의 복벽 시도를 기점으로 하여 1912년-1917년 당시의 언론 보도와 복벽 실패 이후 풍옥상의 정변으로 존호가 폐지되고 공식적으로 “폐제”로 칭해지게 된 1917년-1924년까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아울러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19세기 후반 창간된 이래 현재까지 폐간이나 합병 등을 거치지 않고 일본의 전국신문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³⁾

현재 선통제와 관련된 기사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보면 대략 600여 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신보』, 『성경시보』 등의 대형 언론이 제외된 全國報刊索引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상당수의 기사가 검색된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들이 선통제를 언급한 보도의 경향성과 의도를 핵심 주제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소략하다.⁴⁾ 신해혁명 이후 수많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생성되던 중요한 사건들에 비해, 몰락한 왕조의 幼帝에 대한 인식은 연구의 우선순위가 되기에는 미약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존재가 완전히 잊혀지지 않았고, 혹은 잊혀지기를 거부하고 1932년까지 생존에 성공하여 만주국의 황제

2) 内山舜, 1932, 위의 책, 233-269쪽.

3) 속칭 일본의 5대 신문이라 불리며 근대 이후 그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하였던 언론은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합병 전 『全國日日新聞』)], 『니혼게이지이신문(日本經濟新聞)』,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이다. 이중 창간연대가 1930년대 이후인 『산케이신문』은 분석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니혼게이지이신문』의 경우 경제지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마이니치신문』은 해당 기간 동안 선통제에 대한 기사가 10건 미만으로 지나치게 소략하여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정해중, 2011, 「동아시아 신해혁명의 기억-『申報』, 『毎日申報』, 『讀賣新聞』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6; 後藤孝夫, 1987, 『辛亥革命から滿洲事變へ: 大阪朝日新聞と近代中國』, 東京: みすず書房; 中下正治, 1996, 『新聞にみる日中關係史: 中國の日本人經營紙』, 東京: 研文出版.

로 즉위하게 된 과정에는 선통제가 쌓아올린 모종의 이미지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국 대내외 언론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언론이 선통제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미지화하였는지, 그것이 선통제 측이 바라던 형상과 일치하였는지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그 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이용 가능한 권위”: 1912-1917

신해혁명 이후 일본 정계와 언론은 중국에서의 공화 체제의 성립이 입헌군주제와의 우위 논쟁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면서, 국체와 정체를 나누어 생각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신해혁명 당시 원세개와 손문의 남북정부 수립을 구상하는 동시에 양측에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동북 지역에서 종사당이 만몽의 독립을 주장하며 활동할 당시에도 역시 이를 지원하였다. 이는 당시 북경 주재 공사인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가 혁명 발발 직후 중국이 최소한 2개 이상의 정권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중국 분할 상태 유지가 일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에서 그 이유가 드러난다.⁵⁾ 따라서 혁명 이후에도 선통제를 전면에 내세운 제정의 부활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선통제의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한 일본 언론은 전술한 것과 같이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었으며, 이중 『아사히신문』이 사진 게재 및 세부 사항에 관한 서술에서 보다 적극적이었다. 이에 아래에서 두 신문의 보도 내용 및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선통제의 자서전 『我的前半生(이하 “半生”)』 및 기타 관련 문헌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5) 한정선, 2012, 「근대중국의 공화제 실험과 제국일본의 동요」, 『중국근현대사연구』 53, 26-27쪽.

1) 선통제 개인사 및 황실에 대한 관심

혁명 직후 청조 황실 관련 인사, 혹은 일본 언론의 보도는 선통제 개인보다는 용유태후, 종사당 등 실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의 주체 또는 결정권자로 기능하고 있던 인물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연소한 선통제가 실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현실에 기반하였다. 그러나 소조정의 ‘황제’로서 존재하고 있는 선통제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기사화되었다. 멸망한 청조의 군주, 그리고 정치적 실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의 幼帝를 보도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아래에서 대표적인 기사를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표 1] 1912~1917년 선통제 및 황실에 대한 주요 기사 목록

날짜	신문	제목	내용
1912.03.11.	요미우리	宣統帝保育掛	전청황제의 보육 대상으로 瑾妃가 지정됨. 순친왕은 알지 못함
1912.05.24.	아사히	幼帝と陳寶琛	용유태후가 어린 황제의 스승으로 복건성의 명사인 陳寶琛을 선택함. 황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황제의 학습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총명함을 드러낸 일화에 대해 보도
1912.11.23./25.	아사히	前清皇帝重患-暗雲宮中に動く	전청황제가 총명하고 학문에 관심을 보여 시강에서 상찬을 받던 중 병세가 갑자기 심각해짐. 순친왕 입궁.
1912.11.25.	아사히	清朝最後の悲劇-清朝の將來は只此一小兒の雙肩にあり	현 황제는 총명한 천성을 가지고 있어 황태후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가 성인이 된 이후를 기대하고 있었음. 滿人種이 다수인 北清은 물론이고 혁명당의 발원지인 南清에서도 다수의 土民들이 청조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장훈, 升允 등이 청조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었음. 그러나 청조의 유일한 患石 鳥珍의 사망 이후 연이은 황제의 발병으로 인해 황태후의 비판과 우

6) 이에 대해 *The North-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은 1915년 12월 4일 자 기사 “YUAN SHIH-KAI'S SIXTH DAUGHTER BETROTHED TO EX-EMPEROR HSUAN TUNG”에서 원세개의 第六女와 약혼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대상이 정확하게 특정된 것은 아니고 원세개의 여식과 선통제 간의 혼인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려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임
1912.11.25.	아사히	-額る複雑せる清朝の相續の手續	선통제 사망시 “대청제국 황제” 존칭의 계승이 1대에 한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이는 원세개에게 달려 있음 후계자는 동생인 溥傑이 유력할 것으로 추정됨
1912.11.25.	아사히	-皇太后大傳の苦心遂に水泡たらん	청조의 승계관습상 溥倫이 물망에 오를 수 있음. 후계문제에 대해 용유태후의 근심이 깊어짐
1913.12.10.	아사히	皇族資産優待命令	봉천성의회가 전청황족우대조건을 무시하고 왕부에 대해 부역납세면제 취소 허가를 결정. 순친왕이 대총통에게 그 보호를 청원. 총통이 민정장 등 각지방관에게 선통황제 및 경황후가 공화를 선포한 성덕에 대해 황족자산은 우대조건대로 일률 보호할 것을 명령함
1914.01.08	아사히	宣統帝獨逸留學	몽골 카라친(喀喇沁) 왕은 선통제와 자신의 딸 사이에 혼약이 성립된다면 선통제가 15세가 될 때 독일로 유학을 보낼 것을 희망함. 독일궁정에서 이를 기쁘게 생각하며 조만간 그 교육 등에 대해 논의할 것임
1915.10.2./ 1915.10.5.	아사히, 요미우리	淸室と遠氏の婚姻/ 宣統帝と遠令愛の婚約	원세개 집안과 전청황실의 영원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원세개의 第八女와 선통제의 혼인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
1915.10.19	아사히	遠總統第七女宣統帝婚約	米國 市俄高日報(시카고 신문) 기자가 최근 원총통을 알현하였을 때 원총통의 第七女가 장차 선통제의 비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음 ⁶⁾

혁명 직후 선통제의 보육 대상자로 瑾妃(이후 端康太后)가 지정되고 순친왕이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요미우리신문』의 짧은 기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한다.⁷⁾ 황실 법도상 정식 모친의 지위에 비정되어 있는 용유태후를 제치고 근비가 선통제의 양육 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동치제의 비들에 비해 광서제의 비로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았던 근비를 전면에 내세워 황실에

7) 「宣統帝保育掛」, 『讀賣新聞』 1912.03.11.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외부 세력의 의도가 개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아울러 순친왕과 상의 없이 이러한 일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직 전까지 섭정의 자리에 있었던 순친왕이 선통제에게 미칠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한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사실에 의거하여 소조정 내 권력관계의 변화를 암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위의 목록 중 관심있게 볼 것은 선통제의 투병과 관련된 『아사히신문』의 보도이다. 1912년 11월 23일 『아사히신문』 조간에는 “前清皇帝重患-暗雲宮中に動く”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25일 동일한 기사가 다시 수록됨과 동시에 선통제의 사진 및 청조 황실의 동향 관련 기사도 함께 보도되었다. 선통제의 병세가 위중함과 함께 유고시 후계 계승 문제, 전청 황제의 존호 유지 가능 여부 문제, 전청의 유산 승계 문제 등이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아울러 동북 지역에서 활동 중인 황실 종친, 청조 유신 등의 동향 역시 함께 언급되었다.⁸⁾ 이에 대해 선통제 부의는 『半生』에서 “어릴 때는 겨울만 되면 감기를 자주 앓았다”라고 밝히고 있었고, 그 이외에 생사가 오갈 정도로 큰 병을 앓았다는 회고는 없다.⁹⁾ 기사의 보도 시점이 11월 하순인 것으로 보아 아마도 감기로 인한 고열과 발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태가 나빠졌을 때의 상황으로 추측된다. 해당 기사에서 대부분의 정치적 행위와 판단의 주체는 용유태후로 명기되어 있으며, 순친왕은 입궁 사실에 대한 기록 이외에 별다른 언급은 없다. 아울러 청조에 대한 민중의 지지와 함께 승윤, 장훈 등 청조에 우호적인 인물에 대한 언급이 함께 제시되면서 소조정이 지니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 서술하였다. “현 황제는 총명한 천성을 가지고 있어 … 황태후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그가 성인이 된 이후를 기대하고 있었다. … 滿人種이 다수인 北淸은 물론이고 혁명당의 발원지인 南淸에서도 다수의 土民

8) 「清朝最後の悲劇—額る複雑せる清朝の相續の手續」; 「清朝最後の悲劇—皇太后大傳の苦心遂に水泡たらん」, 『朝日新聞』 1913.11.25.

9) 溥儀, 1999, 『我的前半生』, 北京: 東方出版社. 다만 이는 패전 이후 일반인 신분으로 강등된 부의가 공산당 정권 하에서 기록한 것으로 대체로 자신의 과거를 변명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 아울러 작성된 시기 및 당국의 검열을 거쳤다는 점, 그리고 매 시기 판본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다른 자료와의 검증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들이 청조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 장훈, 승윤 등이 청조의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었다”는 기사의 내용은 혁명 직후 청조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잔존하고 있으며, 선통제가 성장한 이후 소조정의 유지와 발전, 아울러 모종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¹⁰⁾ 이는 일본의 민중에게 중국 내부에 공화제로의 변환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각하여 일본 내에 공화제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기사의 내용은 당시 중국 언론에는 상세하게 보도되지 않았다. 『성경시보』가 11월 27일 『華報』를 인용한 단신 기사로 보도한 것을 제외하면, 『신보』 등 다른 언론에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¹¹⁾ 당시 소조정에서 內務府大臣으로 재직 하였던 紹英의 일기에도 해당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해당 기사의 정보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사히신문』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청조 황실 내부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혁명세력을 비난하고 청조에 우호적인 입장이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본 언론이 청조 관계자 중 독자적인 정보원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1914년 1월 6일 몽골 카라친 친왕의 혼사 희망과 관련된 기사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1월 16일 『時事新報』에서 단신보도 모음의 형태로 동일한 내용을 기사화하였으나,¹²⁾ 『아사히신문』의 보도 일자가 『시사신보』보다 앞선다는 점에서 이들이 청조 유신 또는 황실 내부 인사로부터 직접 관련 내용을 입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몽골 카라친의 札薩克多羅都梭郡王 貢桑諾爾布은 종사당의 핵심 인물이었던 숙친왕 선기의 妹夫이며 그 자신도 일본에 유학한 경험이 있었다. 아울러 1913년 정치회의의원, 1914년 몽장원의 총재로 재임할 만큼 원세개 정권과의 관계도 우호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혼인 문제와 더불어 독일 유학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이를 독일 황실이 긍정적으로 여겼다는 기사 내

10) 「清朝最後の悲劇—清朝の將來は只此一小兒の雙肩にあり」, 『朝日新聞』 1913.11.25.

11) 「清皇果不憚乎」, 『盛京時報』 1913.11.27.

12) 「傳電」, 『時事新報』 1914.01.16.

용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려워 쉽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더구나 당시는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시기로 유럽에 한층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아울러 아무리 정치적 실권을 상실한 황제라 하더라도 만몽간의 결속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혼인관계에 대해 현실적으로 원세개 정권이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는지 여부 역시 의문이다. 그러나 일본 언론이 황실 인사 및 親淸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면서 선통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선통제에 대해 중국의 정국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을 잠재적 요소로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선통제의 '황제' 정통성의 변화와 『우대조건』 변동에 따른 황실의 입지 변동에 대한 일본 언론의 관심은 정치 상황의 변화와 맞물려 주요 보도 대상이 되었다. 이는 1915년 선통제와 원세개의 女息 간 혼인 가능성 대두에 대해 보도한 사례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요미우리신문』은 10월 2일자 신문에서 다수의 기사를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하였고, 『아사히신문』은 10월 5일 이후 며칠간 연속 보도를 통해 그 추이를 조망하였다. 전술한 내무부대신 소영은 당시의 일에 대해 10월 23일 일기를 통해 원세개가 “장래 후 국체가 변경되더라도, 우대조건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여도 좋다. 離宮의 문제는 장래 다시 논의하기로 하되 이전을 대비하여 圓明園을 修建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 등에 대해 언급하였음을 기록하였다.¹³⁾ 이후 11월 16일 일기를 통해 “王爺와 입결하였다. 4분의 황귀비를 뽑기 청하여 대혼사를 제의하였다”고 서술하였다.¹⁴⁾ 선통제 부의는 이때의 상황에 대해 부친인 순친왕의 기록을 인용하여 “世太傅公과 함께 네 명의 황귀비를 만나 황실과 원 대총통과의 혼사를 맺음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모두 승인하시며 일체의 일을 적절히 준비하라고 명하셨다. 내부의 비밀 문건이 적절한지 여부, 모든 것이 영구적이어야 할 것 등등에 대해 논하였다”¹⁵⁾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자신의 혼사가 원세개의 황제 즉위에 대한 승인과

13) 「民國四年乙卯日記」, 1915.10.22. 『紹英日記』, 2018, 北京: 中華書局, 300쪽.

14) 「民國四年乙卯日記」, 1915.11.16. 위의 책, 2018, 302쪽.

15) 溥儀, 1999, 앞의 책, 96쪽.

『우대조건』의 헌법 삽입 및 항구적인 보장조치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추론하였다.

『紹英日記』의 기록상 원세개측 인사와 황실 인사의 접촉이 활발해진 것은 9월 30일 단강태후의 생일행사를 전후한 시기부터였다. 다만 이 시기에는 혼인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원세개 집안과의 사적 교류 등이 부각되어 있다. 『요미우리신문』의 최초보도가 10월 2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 언론은 최소 공식화 한 달 이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황실과 원세개 집안의 결속 강화 차원의 조치라고 보도한 것이다. 이는 중국의 정치 변동에 민감하였던 일본의 정보 수집력과 관심이 대증매체를 통해 드러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10월 17일 『신보』가 『大陸報』의 12일 기사를 인용하여 선통제의 혼인 관련 소식을 보도하였고,¹⁶⁾ 뒤이어 10월 19일 『아사히신문』에 청 황실의 거취에 대한 장훈의 상소가 실리고 24일 『소영일기』에서 국체 변경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소조정 및 선통제의 거취 문제가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원세개의 황제 즉위가 확정되어가던 시점에서 선통제의 미래에 대해 일본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였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원세개 황제 즉위 시도와 소조정의 운명에 대한 전망

중국에서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라는 국체가 소멸하고 군주제로 회귀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주변 이해 국가 역시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공화정에 대해 경계하고 있던 일본은 표면적으로 제제로의 복귀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원세개의 황제 등극이 현실화되면서 주변의 다수 국가와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으로 선화하였다.

중국 국내 언론에서 제제로의 회귀에 대해 찬반 또는 저항의 목소리가 엇갈렸던 것에 비해 일본 언론의 경우 직접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보다 사건 진행의 추이

16) 「總統與清室聯姻之別報」, 『申報』 1915.10.17.

를 보도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여기에 빠지지 않았던 기사가 이른바 ‘전청황실’과 ‘선통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들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2] 1912~1917년 洪憲帝制 시도에 대한 주요 기사 목록

날짜	신문	제목	내용
1915.10.19.	아사히	前清皇室と張勳	帝制解決과 관련하여 전청황실의 처분에 대해 청 조유신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음. 長江巡閱使 장훈이 대총통에게 장문의 건의서를 보내어 『前清皇室優待條件』에 명시된 君權에 저촉되므로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1915.10.19.	아사히	清皇室優待條件	新帝制의 수립이 『前清皇室優待條件』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장훈의 주장에 따르면 청 황실과 대총통의 관계는 요순의 선양과 유사함. 선통제에 대해 장차 역대 帝朝의 보존과 황실 재산의 관리 등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따라서 장훈은 우대조건의 항구적인 보존이 필요함을 역설함
1915.12.17.	아사히	宣統帝遷移內定	원총통의 즉위가 임박한 외중 북경 官界에서는 선통제의 處置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 遠皇帝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선통제가 그 수행원과 함께 북경 西郊의 西山으로 옮길 것을 희망함
1916.02.09.	아사히	前清皇室政府に質問	전청황실은 정부에 대해 『우대조건』 중 종묘에 영원히 봉사한다는 항목이 항구적으로 보장되는지, 존호를 폐지하지 않는 대상이 선통제 1대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함. 정부는 장차 민의기관이 성립된 이후 그 해석을 제출하겠다고 답함
1916.05.25.	아사히	遠氏清朝復興を策す	원씨는 대내외 형세를 고려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청조를 부흥시키고 유제를 옹립하고자 하는 奸策을 구상하였음. 장훈, 장작림 등을 움직여 청조부흥을 추동하게 하고 있음. 원씨의 진심은 목하 일본에서 북벌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각성장군 중 북방 세력이 드물다는 점을 호기로 삼고자 하는 것에 있음. 선통제를 전면에 내세워 자신에게 쏟아지는 국민의 환을 전가시키고 이후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임

원세개가 황제 즉위를 시도하던 당시는 1913년 용유태후의 사망 이후 소조정의 정치적 구심점이 부재하였던 때였다. 황족들 중 일부는 종사당 활동에 참여하

거나 만주족의 참정권 인정 등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으나, 원세개에 대등하게 맞설 만한 구심점으로 작용하기에는 그 정치적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순친왕은 청말 섭정의 실패 이후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기사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강유위, 장훈 등의 일부 청조 유신이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조를 옹호하고 있었으나 그 방향성이 소조정의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기대하였던 것은 ‘만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통적인 유가 왕조 체제의 ‘황제’였기 때문이다. 이는 후술할 강유위의 복벽론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청조 관계자 중 유일하게 원세개와 대등할 수 있었던, 혹은 무시하지 못할 존재였던 선통제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대조건』이 중화민국과 청조 사이에 체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원세개가 제정국가 ‘중화제국’으로 국체와 국호를 변경한다면 『우대조건』의 연속성과 유효성이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이에 대해 손문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 세력에게 관련 책임을 추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여 원세개를 견제한다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소조정과 청조 유신의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시기에 보도된 기사들에는 이러한 소조정 및 청조 유신의 불안감과 이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자제하고 상황을 관망하는 일본 언론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일례로 1915년 10월 19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前淸皇室と張勳” 이하 관련 기사에서 장훈은 청조 멸망 당시에 제기된 ‘선양’의 논리를 다시 언급하였다.¹⁷⁾ 즉 청조가 중화민국에게 정치적 권력을 내어준 것은 혁명의 폭력성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민심을 돌보고자 하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원세개의 정치적 지위가 총통에서 황제로 변모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중화민국, 뒤이어 출범할 중화제국은 선통제의 권력 이양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음을 상기시키고, 그 권력 이양에 따른 대가 역시 연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7) 「前淸皇室と張勳」; 「淸皇室優待條件」, 『朝日新聞』 1915.10.19.

이는 전술한 17일 『신보』의 기사에서 “국체가 변경된 후에도 우대조건은 폐지되지 않으나 선통 1대로 제한되며 세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세개가 선통제를 양자로 삼고자 한다는 소문이 있으나 양자에게 제위를 세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¹⁸⁾ 『성경시보』 역시 15일 이후 “論國體變更之隱憂” 등의 기사를 통해 국체변경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수록할 뿐 소조정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도 내용이 없다.¹⁹⁾ 당시 소조정의 상황과 청조 유신들의 대응 논리를 보다 세부적으로 보도하고 있던 것은 자국내 언론이 아니라 일본의 언론이었던 것이다.

한편 ‘홍헌제’라는 새로운 황제의 등장은 기존에 ‘황제’로 칭해지던 선통제의 칭호 및 대우의 격하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1915년 12월 17일 『아사히신문』에서 칭호와 지위의 격하(왕공) 및 거처의 이전 등에 대한 보도를 통해 그 함의를 분석한 것에서 드러난다. 이는 단순히 격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전 왕조의 황제라는 정통성을 근거로 원세개와 대등한 위치에 섰던 선통제의 기반이 소실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전술한 것처럼 원세개의 황제 즉위에 대한 찬성과 『우대조건』의 항구적 명문화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청조 황실 인사들이 『아사히신문』의 기사에 드러난 것처럼 ‘황제’ 칭호의 유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의하였다는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정치적 실권이 부재한 제위, 혹은 칭호의 계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우대조건』이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우대조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대청황제’의 존재는 민국체제가 유지되는 한 계속될 것이며, 이를 위해 황제 칭호가 계승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마련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황제’ 칭호가 소멸하고 왕공으로 격하된다면 『우대조건』 역시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했다. 비록 원세개가 『우대조건』의 항구적 명문화를 약속하였지만 기존의 유교적 사교체계에서 ‘황제’ 칭호는 병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

18) 「總統與淸室聯姻之別報」, 『申報』 1915.10.17.

19) 「論國體變更之隱憂」, 『盛京時報』 1915.10.15; 「論外人之無贊成帝制之心理」, 1915.10.16; 「警告帝制運動者」, 1915.10.24.

다. ‘前清皇帝’, 추존황제, 혹은 선양의 논리를 적용하여 ‘선황제’ 정도로 비정한다 하더라도 그 칭호는 선통제 1대에 국한되는 것이었다. 혁명 당시 체결된 『우대조건』이 원형대로 존속되기 위해서는 구심점으로서의 청조황제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또는 그 존재가 폐기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황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받기 위한 대비책 마련 역시 시급한 과제였다. 따라서 그 전제가 되는 존재의 존속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는 상기한 원세개와의 약속에서 정의되지 않았던 것이었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세개가 보도된 것처럼 “민정부의 출범을 기다려 답변하겠다”는 답신을 보낸 것은 이면 합의대로 자신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민간의 반발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미루고자 하는 의도가 개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황제 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통제의 정통성과 권위는 이용하되 이들에게 현실적인 대책은 분명히 명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통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원세개의 이러한 의도는 결국 황제등극 실패 이후 일본 언론에 의해 ‘奸策’으로 평가되었다. 『아사히신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복벽론 역시 원세개가 국면 전환용으로 선통제의 복귀와 청조 부활을 내세워 모든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게 한 후, 자신이 이를 수습하는 모양새로 재등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다.²⁰⁾ 여전히 선통제는 원세개의 정치적 부활을 위한 도구로 서술되고 있었던 것이다.

상술한 일본 언론의 혁명 직후 선통제에 대한 인식은 과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혁명 직후 ‘유제’ 선통제는 그 자신의 능동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받는 인물이기보다는 1) 권력 이양과 그에 대한 『우대조건』의 보장 이행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존재, 또는 2) 혼인 등 친밀한 관계 형성 등을 통해 권력을 확장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존재, 또는 3) 청조의 재건 또는 반정부적 세력의 구축 및 결집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존재로 평

20) 「遠氏清朝復興を策す」, 『朝日新聞』 1916.05.25.

가되었다. 특히 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한 일반 민중과 유가 왕조에 대한 미련을 지닌 청조 유신에게 ‘청조 황제’로서의 선통제의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든 여전히 유효하였다. 상기한 일본 언론의 기사의 경향성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일본 언론은 혁명 초반에 공화의 혼란을 부각하고 대안으로서 선통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연대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면, 원세개의 황제 즉위 시도를 전후한 시기 이후는 황실의 이익 보전 혹은 원세개의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한 도구로서의 존재로 선통제를 다루었다. 이는 제3자의 입장에서 향후 중국 정치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삼감으로써 연대 혹은 이용의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혁명 직후 『아사히신문』이 “일본의 대중국정책은 모두 실패하여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가 취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불이익이 없는 통일 정부의 성립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던 논조의 연장으로 보인다.²¹⁾

일본 언론의 이러한 논조는 1917년 장훈의 복벽, 1924년 소조정의 폐지와 선통제의 출궁 이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Ⅲ. “潛龍”: 1917-1924

1) 강유위의 복벽론과 장훈 복벽 당시 선통제에 대한 보도

장훈의 복벽 발발 직후인 1917년 7월 2일 『요미우리신문』은 기사 “男らしい骨が鳴る”를 통해 이오키 료조(五百木良三)의 발언을 빌려 “간단한 電文으로는 그 진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 幼帝 옹호를 위한 병력의 파견은 착오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훈이 항상 복벽론자로서 존재하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21) 「大清問題の今後」, 『朝日新聞』 1912.3.16.

다 ... 우리나라는 필요없는 간섭을 피하고 복벽 이후 서세창 일파 및 제제파의 동향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날인 7월 3일 역시 “支那復辟運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장훈의 복벽으로 인해 중국 내에 혼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동시에 일본은 북양파와 민당파에 대해 不偏不黨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며, 장훈의 운동에 대해서도 역사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서세창의 세력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이들이 선불리 중국의 정세 변화에 개입하지 않고 사태의 추이를 전망하고자 함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으나, 중국을 장악하게 되는 세력이 확정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했던 의도 역시 개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실 청조복벽의 가능성은 1916년 강유위에 의해 전개된 복벽론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소개된 이후 장훈, 서세창을 중심으로 하는 청조 유신이 수차례 회동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본에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이제 복벽이 구체화되면서 그 목적, 주체와 방식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및 이 과정에서 선통제를 어떻게 비정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일본 언론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아래에서 주요 기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3] 1917년~1924년 복벽론 및 장훈 복벽에 대한 주요 기사 목록

날짜	신문	제목	내용
1916.04.03.	아사히	康氏清帝復辟主張	강유위가 虛君立憲制를 중국의 시국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하며 선통황제의 복벽을 조장하는 논문을 발표함
1916.04.09.	아사히	康有爲の復辟論	강유위 복벽론의 내용 요약 및 소개
1916.06.13.	아사히	前清大官復辟運動	“支那の動亂”이라는 특집 기사 하에 상해특파원 발로 보도, 장훈, 풍국장 등이 선통제의 복벽을 위해 각 성에 타전하여 동지를 모으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1917.02.20.	아사히	清朝復辟問題勃興	주일중국대사 陸宗輿는 청조복벽 문제의 논의를 위해 내조하였음을 밝히고 그 문제의 발생 유래에 대해 설명. 제3차 혁명 발발 이후 국민당의 세력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였음. 국민당의 우세를 우려하여 장훈 등의 서주파가 정쟁의 도구로 선통제 복벽론을 제창함. 국민당의 반대가 시작되자 주안회의 양사이 및 양도 등이 가담함. 원세개 당시 만몽독립을 획책한 숙친왕이 중심이 된 종사당계의 승운 및 장작림 및 내몽고의 48인 각왕 등이 서주파와는 별도로 숙친왕을 옹립하여 청조를 부활하려고 하는 청조복벽안을 주장하였다고 발언함
1917.06.18.	아사히	張勳宣統帝に謁見	장훈이 6일 선통제를 알현함. 세속 등 소조정 내무부 三大臣 및 근위군연대장 등이 배석. 舊王의 은혜에 감복하고 거액을 현금한 후 청황실의 하사품으로 古器物書畫를 사여받음
1917.07.02.	요미우리	男らしい骨が鳴る	支那通 이오키 료조(五百木良三)의 발언을 통해 장훈 복벽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소개함
1917.07.03.	아사히	宣統帝の復辟	장훈이 오래 주장해왔던 복벽이 실현됨. 복벽은 군벌간 정쟁의 승리가 끝내 무력의 강약에 의해 결말지어진 것이므로, 중국이 장차 동란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음. 청조의 복벽은 남방의 민국 정부와 필연적으로 충돌을 야기하여 대동란이 일어날 것임. 동아의 안위는 이후 형세의 추이에 달려 있음. 그간 청제복벽설을 비웃던 일본 당국자들은 迂闊하였음. 국민들의 각오를 촉구함
1917.07.03.	요미우리	支那復辟運動	일본은 북양파, 민당파 모두에게 불편부당한 태도를 취해야 함. 장훈 내각을 관망하고 서세창 세력의 동향에 주시할 필요 있음
1917.07.04.	아사히	清帝熱河蒙塵か	열하의 姜桂題는 장훈을 도와 청조옹호의 뜻을 밝힘. 장훈이 만약 패한다면 열하의 離宮을 선통제에게 봉헌할 뜻을 표명. 가능여부는 일본의 원조에 달려 있다고 칭함
1917.07.04.	요미우리	復辟計畫の運命	장훈의 복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복벽 이전에 세웠던 계획에 대해 추론함. 남북의 분립, 외교권의 傍觀 등으로 추정.
1917.07.02. 1917.07.04.	아사히 요미우리	宣統帝の上諭 宣統帝上諭	선통제 즉위 당일 여원홍 대총통의 국정봉환에 대한 상유가 발표됨
1917.07.04.	아사히	溥倫貝子か	북경특파원발로 溥倫貝子 자살설 보도

1917.07.05.	아사히	自殺の報ある溥倫貝子	전날 자살 추정을 보도한 부류의 생애와 업적을 간략히 소개. 복벽 당시 다른 왕공과 달리 반대하고 청조의 복벽은 광서-함풍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며 正嫡은 자신이니 황위를 계승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이로 인해 장훈의 횡포에 격분하였거나 혹은 장훈일파의 압박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됨
1917.07.07.	아사히	復辟と支那形勢(二)	장훈과 서세장은 종사당이 친귀내각 부활을 도모하여 인종쟁란을 도발할 것을 우려하여 복벽에서 제외함. 장훈과 서세장은 섭정으로 숙친왕 등 종실의 임용을 막고 한족 황후를 옹립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서세창이 女息을 내세우고 본인이 섭정왕이 되고자 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장훈과 서세창 간에 분쟁이 벌어짐
1917.07.09.	요미우리	此次は南北の爭覇	장훈이 몰락한 이상 유제의 퇴위는 당연함. 아울러 청조의 그림자는 영원히 사라짐. 국제문제 역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내대신 세속, 승운 등과 왕공들이 회의를 열어 장훈이 청조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통탄함
1917.07.12.	아사히	清帝退位準備	장훈 측 일파가 선통제 퇴위의 상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1917.07.15.	아사히	宣統帝所在不明說	14일 북경특파원발 소식으로 사면포위된 궁성 내에 비행기의 포탄이 떨어지면서 위기 상황에 처함. 중국인 사이에 선통제가 궁중에 생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확산됨
1917.07.19.	요미우리	皇室特權剝奪	서세창 등은 皇室先後策을 협의하면서 북양전체軍會의 명의로 『우대조건』의 취소와 지원금의 정지, 황제 칭호 박탈 및 평민화 등의 4개항을 요구함
1917.07.21.	아사히	宣統帝重患	20일 북경특파원발 소식으로 선통제가 시가전에 놀라 일시적으로 중환 상태에 빠졌으나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보도함
1917.07.22.	아사히	宣統帝病小康	전일의 연속 보도로 우려를 자아내었던 선통제의 발열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고 보도함

먼저 살펴볼 것은 1916년 4월 3일 『아사히신문』의 기사이다.²²⁾ 강우위의 복벽론을 소개하면서 당시 중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虛君共和”가 아니라 “虛君

22) 「康氏清帝復辟主張」, 『朝日新聞』 1916.4.13.

立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당시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당시 일본에서 정부형태 또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상에서 공화가 헌법이나 교육 이념으로 공식 선언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메이지 유신 이래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천황주권설과 천황기관설이 확고한 지배 이념으로 자리를 잡아 인민주권의 공화제 이론은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다. 尊王攘夷의 천황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는 물론이고 공화주의조차 발붙이기 어려웠다.²³⁾ 마찬가지로 신해혁명이 발발하자 집권정부와 육군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들은 이를 ‘일본 국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그러한 위기의식이 국내적으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다이쇼정변으로 나타났고, 대외적으로는 위안스카이와 군벌이 내세운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중국정책으로 표출되었다. 뿌리 깊은 공화제에 대한 거부감은 비단 군벌과 원로 등 보수 세력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한 일합방의 반대 성명에 참여하였던 일본의 자유주의자 우키타 가즈타미(浮田和民)조차 “오늘날 문명세계에서는 군주국 및 공화국은 모두 입헌정체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문명세계에서는 국체의 우열 또는 변경을 운운할 필요는 없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군주제와 공화제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각 정체와 사회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²⁴⁾ 전술한 것과 같이 신해혁명 직후에는 중국의 혼란을 부각하여 공화제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면, 이 시기에는 ‘공화’ 대신 ‘입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복벽의 목적이 입헌군주제 추진에 있음을 부각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시 강유위는 군주가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실제적인 국정의 운영은 재상과 의회가 주관하는 것이 ‘虛君共和’ 즉 입헌군주제의 특징이라 보았다. 虛君共和가 곧 입헌군주제라는 康有爲의 주장은 그가 청조 및 중국의 전통을 토대로 하여 서양의 공화정체를 수용하려 한 것에서 발현된 것이었다. 康有爲는 구 청조의 황제 및 공자의 후손만이 虛君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구 청조의 황제와 공자의 후손이 중국에서 가진 전통적 권위와 상징성 때문이었

23) 정상호, 2016, 「동아시아 공화(共和) 개념의 비교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50집 5호, 218-219쪽.

24) 한정선, 2012, 앞의 논문, 28-30쪽.

다. 康有爲는 이 두 존재라면 혁명으로 인해 민심이 흩어지고 국토와 민족이 분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虛君이 되어야만 중국이 軍과 民을 포용하여 민족·영토·사상적인 측면에서 통일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康有爲가 신해혁명 이후 虛君共和를 주창하며, 기존 중국의 전통과 당대 공화의 추세를 연결하려 한 것은 '중국의 분열 위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따라서 중국을 구할 방안으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虛君共和를, 사상적 측면에서는 유가 등으로 중국을 회복시킬 구심점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와 사상적 측면에 중추적 역할을 할 존재로 공자를 재소환하기 시작했다. 이는 결국 영국식 또는 일본식의 입헌군주제가 아닌 중국식의 虛君共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²⁵⁾

아직 연소하며 정치적 실권을 실제로 행사해 본 경험이 없는, 따라서 정치적 자아나 목표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황제는 '허군'으로 내세우기 적합한 존재였을 것이다. 이는 복벽 세력이 내각 구성 이후 청조 붕괴의 책임을 물어 순친왕을 비롯한 속칭 황실친구들을 정치적 실권에서 철저히 배제하였던 것으로도 확인된다. 1916년 순친왕과 장훈 일파가 복벽 문제로 접촉할 당시 순친왕을 중심으로 하는 소조정 황족들은 자신들이 정치권력에서 배제되는 형태의 복벽에 참여할 수 없음을 천명한 바 있었다. 결국 이 복벽이 궁극적으로 목표한 것은 '만주족' 황제의 복위가 아닌 '유교 황제'의 복위였던 것이다. 이는 복벽 당시 속친왕 일파가 주도하던 동북지역 종사당 계열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짐작하게 해준다. 적어도 종사당이 바라던 것은 일본과 유사한 입헌군주제 국가의 수립 혹은 황제제도의 부활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유위와 장훈 일파가 복벽 당시 이들을 배제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1917년 2월 20일 『아사히신문』의 “清朝復辟問題勃興”에서는 당시 차관 문제로 일본을 방문한 육종여의 발언을 인용하여 종사당이 속친왕 선기를 옹립하는 청조복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²⁶⁾ 이는 그 사실 관계

25) 지관순, 2022, 『中華民國 初期 '再儒化'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4-95쪽.

26) 「清朝復辟問題勃興」, 『朝日新聞』 1917.02.20.

의 확인이 필요하다. 장훈과 서세창은 1916년부터 복위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그 핵심은 청조의 한인왕조화에 있었다.²⁷⁾ 육종여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종사당 세력이 숙친왕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권력체제를 창출하려고 한다는 거짓 정보를 진술한 것은 가와시마 나니마 및 관동군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던 동북지역 종사당에 대한 견제의 목적이 강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육종여가 일본을 방문할 당시 여순의 숙친왕 역시 일본 방문을 기획하고 있었으나 이는 북벽 세력과의 잇따른 접촉이 국내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일본 정부에 의해 중지되었다.²⁸⁾ 그러나 당시 동북지역 종사당의 경우 거듭된 만몽독립운동의 실패로 군사적 열세에 놓여 있었고, 현실적으로 장훈 세력에 당장 맞설 힘이 부족하였다. 종사당 일파 중 승윤 등은 원세개의 황제 즉위 시도 당시 참여한 일파에게는 반발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장훈과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숙친왕 본인은 청조로부터의 이탈을 도모하기보다 궁극적인 목표가 선통제의 복위에 있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장훈 휘하에서 동삼성 총독으로 취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⁹⁾ 그러나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참조하면 서세창과 장훈 일파는 이미 북벽 이전부터 이들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17년 7월 3일-4일 보도된 부룬의 자살설은 가십화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될 수 있다.³⁰⁾ 부룬은 함풍제 사망 이후 후계 결정을 논할 당시 함께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도광제의 적장자 직계후손이라는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다. 신해혁명 당시 국체변환에 찬동한 이후 원세개 정권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숙친왕을 중심으로 하는 선통제 계열의 황족과는 마찰을 빚었다. 『아사히신문』은 제위 승계를 위한 명분인 정통성과 그가 청조 내각에서 수행한 근대화 추진 업적에 주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룬의 사신을 함께 보도하면서 그가

27) 阿部由美子, 2007, 「張勳復辟と滿蒙王公の反応」, 『滿族史研究』 6, 61-62쪽.

28) 「肅親王渡日に関する件」,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3022425900, 密大日記4冊の内 4, 大正6年(防衛省防衛研究所).

29) 阿部由美子, 2007, 위의 논문, 54쪽.

30) 「溥倫貝子か」, 『朝日新聞』 1917.07.03; 「自殺の報ある溥倫貝子」, 1917.07.04.

‘황족 회의 도중 스스로 적통의 지위를 내세우고 함풍-광서-선통으로 이어지는 기존 황통의 부정과 황제 승계 책임자임을 내세워 마찰을 겪었다’고 서술한 것은 충분히 대중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것이었다. 만약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조의 복벽-능력이 검증되지 못한 幼帝의 복위-정통성과 능력을 겸비한 황족의 자살 추정’은 그 비극성을 강조하는 한편 복벽의 목적이 황제를 꼭두각시로 이용하기 위해 있음은 은연중에 드러내기에 충분하였다. 아울러 『아사히신문』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12년 11월 선통제의 투병 당시에도 후계 문제에서 부류를 유력한 인물로 지목한 바 있었다.³¹⁾ 이는 『아사히신문』이 장차 청조 황실의 제위 승계 문제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넘어 청조 황실의 내분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부류는 복벽 당시 생존하여 장훈의 복벽에 적극적으로 찬동한 몇 안 되는 황족이었고, 그가 실제 사망한 것은 1927년의 일이었다. 청조 멸망 이후 溥傑과 더불어 선통제의 공부 상대 역할인 反讀에 선정되었던 부류의 아들 毓嵩은 복벽 실패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는 부류가 장훈복벽에 가담한 자신의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 스스로 유폐한 것이라고 추측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이 이처럼 사실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복벽의 혼란함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었거나 또는 타국의 사정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복벽 과정에서 선통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도되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통제는 혁명 당시보다 성장하였다고 하나 당시 여전히 성인의 연령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황제로 즉위한 것은 선통제였으나 언론의 보도상 여전히 정국의 중심 인물은 장훈 또는 강유위였다. 복벽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우대조건』 폐지 논쟁을 보도한 대내외 언론의 기사에서 묘사된 선통제의 모습은 ‘일련의 사건에 휩쓸려 중병을 얻은 어린아이’였다. 이에 북양정권은 ‘황제는 연

31) 「皇太后大傅の苦心遂に水泡たらん」, 『朝日新聞』 1912.11.25.

소하여 자주적 행위자가 될 수 없으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발표하고 황실에 대해 위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정리하였다.³²⁾ 따라서 소조정은 황제의 결백과 “오족공화”의 실현 등을 이유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기존 『우대조 건』에 따른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시보』 및 『아사히신문』 등 여러 신문에 묘사된 내용은 『半生』에 묘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내각이 준비한 퇴위조서가 대총통령에 포함된 내무부 성명서로 대체된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황실의 안위와 내란 종식을 위해 ‘어린 황제를 위협한 장훈’이라는 구도를 통해 선통제를 방패로 삼아 모든 책임을 은폐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허군공화”를 위해 이용되었던 선통제는 또다시 소조정 이하 황실 인사들의 안위를 위해 이용당하는 존재가 된 것이었다.

2) 장훈 복벽 이후와 선통제의 출궁

복벽 당시 선통제의 연소함만이 부각되고 정치적 능력이 표면화되지 않아 그 에 대한 판단을 유예하게 된 것은 이후 선통제의 행보에 대해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기제로 작용하게 되었다. 혼례 이후 공식적으로 성인 대우를 받게 됨과 동시에 영국인 존스톤(Reginald F. Johnston)의 지도 하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서, 선통제는 잠재적인 정치권력으로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장작림의 복벽시도설과 더불어 증폭되었고, 기존에 선통제에 대해 중대사건 위주로 보도하였던 『요미우리신문』 역시 관련 보도기사가 증가하였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4〕 1917년~1924년 장훈 복벽 실패 이후 선통제의 동향 관련 주요 기사

날짜	신문	제목	내용
1918.01.01.	아사히	宣統帝の將來	宣統帝特講 진보침의 기고를 통해 선통제의 능력을 칭송하고, 선통제가 일본토벌론을 비판하고 중국이 강성한 국가를 이룩하기

32) 「揭開復辟大黑幕布告國人識」, 『盛京時報』 1917.07.26.

			위한 방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함
1920.07.22.	아사히	清朝復辟說如何	장작림의 복경 입성과 더불어 그가 선통제를 복위시키고자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음. 전청황실은 장훈의 복벽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고 부정하고 있음.
1920.12.23.	아사히	宣統帝と徐總統の令愛結婚 お流れ	선통제와 서세창의 四女간 혼담이 오가고 있으며 신년 초에 혼례식이 거행될 것으로 관망됨
1921.03.29.	아사히	復辟說の出處	장작림의 복벽 추진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님을 지적하며 만몽제국 설립 음모, 장훈복벽 등의 사례를 통해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1922.03.30	아사히	肅親王逝く	여순에 체류하던 숙친왕의 사망 소식을 보도하면서 그가 육신은 비록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어린 선통제를 지킬 것이라고 유언하였음을 언급함
1922.07.29.	요미우리	元の宣統帝	선통제의 사진을 수록하면서 퇴위 당시 7세에 불과하던 유약한 인물이 세월이 흐른 뒤 17세가 되어 屈強한 청년이 됨
1922.11.18.	요미우리	支那の新人 宣統帝 (一)~(三)	복경 如石生 필명으로 투고된 선통제의 궁중 일화를 소개. 그가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묘사함
1922.11.25.	요미우리	十二月一日に大婚の式を挙げる宣統帝	선통제의 혼례가 12월 1일에 거행될 예정임. 재정난에 시달리던 소조정이 선통제의 혼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국보를 매각할 것을 고심하고 있음. 이는 대청의 영화가 쇠락하였음을 보여줌
1923.04.01.	아사히	清朝復辟說	장작림이 일본의 협조 하에 선통제를 복경에서 즉위시킬 것이라는 설이 파다함
1923.04.05.	아사히	張作霖氏の復辟計畫宣傳	장작림은 선통제 복위 주도설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함
1923.06.28.	아사히 요미우리	清朝宮殿の大火 宣統帝の邸燒失	『아사히신문』은 화재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소실된 건물의 사진과 함께 불길 속에서 빠져나온 선통제의 사진을 게재함. 손해는 일천만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사고전서』도 소실되었음. 『요미우리신문』은 고대건축물의 전소에 초점을 두어 서술
1923.07.17.	아사히	宣統帝の初めて宦官を解放	선통제가 황비와 부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3천여 명에 해당하는 환관을 해방함
1924.04.19.	아사히	宣統帝訴へらる	청조황실의 재정궁핍으로 인해 상인이 선통

			제를 상대로 20만원의 비용 체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1924.11.06. 1924.11.08.	아사히 요미우리	馮軍禁苑に闖入し宣統帝を 追出す / 宣統帝追出しは	풍옥상군이 선통제를 자금성으로부터 퇴출 시킴. 선통제는 순친왕저로 탈출함. 선통제 부부와 자금성의 사진을 함께 게재함. 일본·미국·네덜란드 공사가 풍옥상군에 대해 경고함.
1924.11.30.	아사히	嚴戒の幽居を脱出し 宣統帝我公使館に避難	선통제가 11월 29일 오후 4시경 북경 일본 공사관으로 급히 피난하였음
1924.12.4.	요미우리	夫君後慕つて-溥儀氏夫人 避難	부인의 부인도 12월 3일 일본 공사관에 도착

1920년부터 1923년까지 군벌간 권력 다툼에서 장작림이 부상하면서 그와 연계한 북벌설 역시 활발하게 대두되었다.³³⁾ 이러한 정국의 급속한 변화는 성장한 선통제의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 여기에 황제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진보침의 기고와 존스톤의 인터뷰 등이 홍보 효과를 더하여 선통제의 이미지는 일본 등 아시아 사회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잠룡'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었다.³⁴⁾ 이에 선통제의 환관 추방 등 소조정 내의 개혁 조치는 그가 정치적인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에 대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³⁵⁾

그러나 1923년 장작림의 퇴각 전후로 선통제의 정치적 영향력은 또다시 불안정한 것이 되었다. 선통제는 친위군 이외에는 자력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권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 세력과의 연대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선통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군벌은 많지 않았고 이는 소조정과 선통제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졌다. 아울러 선통제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노출된 황실의 재정 문제, 자금성의 화재 등은 선통제를 가십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특히 자금성 화재 사건을 다룬 기사의 내용은 선통제가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한 개혁을 둘러싼 소조정 내의 갈등보다는 피해의 규모에 집중되어 있었다. 소실된

33) 「清朝復辟說」, 『朝日新聞』 1923.04.01; 「張作霖氏の復辟計畫宣傳」, 『朝日新聞』 1923.04.05.

34) 「支那の新人 宣統帝」(一)~(三), 『讀賣新聞』 1922.11.18.

35) 「宣統帝の初めて宦官を解放」, 『朝日新聞』 1923.07.17.

전각의 사진은 사건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나, 여러번 언론에서 인용된 선통제의 사진을 ‘화재에서 빠져나온 선통제’라는 부제 하에 게재한 것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였다고 해석된다.³⁶⁾

이는 1924년 풍옥상군이 자금성으로 진입하여 선통제를 추방한 전후로 한층 고조되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공사관으로 거처를 이전한 선통제에 이어 황후가 합류한 사안에 대해 “溥儀氏夫人”으로 호칭하며 이를 보도하고 있었다.³⁷⁾ 이는 『우대조건』의 개정으로 선통제의 칭호가 폐지된 것에 대한 반영이었을 것이다. 이후 두 신문 모두 “선통폐제” 혹은 “부의”로 칭하며 그 칭호의 회복 가능성 및 자금성으로의 귀환 등에 대해 보도하였다. 이는 달라진 현실에 대한 표면화이자 잠재적 권력과 정치적 정통성 및 권위를 모두 상실한 개인에 대한 언론의 시선이었다.

IV. 결론

이상에서 선통제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 경향에 대해 시기를 나누어 그 목적과 추이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원세개의 황제 즉위 시도 전후에 일본 언론에 비친 선통제는 불완전한 공화제 도입으로 희생된 존재, 타의에 의해 권력 변동의 구심점에 설 수 있는 존재이거나 혹은 만주족 황실의 이익 보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다. 실질적인 정치행위는 전무하였으나 그 지위로 인해 타인의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된 것이다. 그러나 장훈 복벽 실패 이후 일본 언론이 선통제를 묘사하는 방식은 정치 행위의 가능성을 내포한 ‘잠룡’이 주된 기조를 이루고 있었다. 다만 이는 일본 언론이 자체적으로 형상화한 이미지라기보다는 청조 유산들의 기고문 등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전시기와는 차이를 보인다. 오히려 일본 언론은 가십거리로서 선통제 및 소조정의 秘史

36) 「清朝宮殿の大火」, 『朝日新聞』 1923.07.17; 「宣統帝の邸焼失」, 『讀賣新聞』 1923.07.17.

37) 「夫君後慕つて-溥儀氏夫人避難」, 『讀賣新聞』 1924.12.04.

를 다루는 경우가 전시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아울러 장작림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타인의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보도하는 경향 역시 지속적으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내 언론이 선통제를 비롯한 청조 황실 인사들의 사정에 대해 보도하지 않을 때에도 관련된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일본 언론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료적 편향성을 극복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며, 본고에서도 미흡하게나마 이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다만 선통폐제가 소조정 내에서 정치행위를 시행하지 못하여 그 정치적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상태로 출궁된 것은 결과적으로 ‘미지의 존재’로 그를 남겨둠으로써 이후 대여론정책에서 유리한 지점으로 작용하였다. 선통폐제 및 측근 청조 유신들은 이제 청 황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장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미 金梁은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던 1924년 4월 10일 현 정국에 대한 대비책으로 “文化故物과 자선교육을 구실로 하되, 토론을 준비하고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은 대중의 여론을 돌리고 저항하는 세력을 제거한 후에 점차적으로 진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사람들의 조력을 얻고 외부의 모욕을 방어함으로써 무형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언하였다.³⁸⁾ 이는 청조 황실의 위신과 세력 회복을 위한 여론 형성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었다. 鄭孝胥 역시 “그러므로 지금 황제가 중흥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군대의 힘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聖德이 中外에서 명성을 떨치게 할 것이니 반드시 군주의 날을 바라는 이들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충고하였다.³⁹⁾

선통폐제는 이에 따라 우선 활발히 외부와 접촉하였다. 천진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 1925년 8월 영국, 일본, 미국의 총영사 및 사령관들과 회동하였으며, 1926년 10월에는 캐나다 총독으로 임명된 윌링던(Lord Willingdon)과 회동하는 등 국제 무대에 끊임없이 존재감을 드러내하고자 하였다. *The North-China Daily News*, *The North-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등의 서구

38) 「清室復辟陰謀之暴露」, 『盛京時報』, 1925.8.7.

39) 『鄭孝胥日記』, 1927.6.23, 北京: 中華書局, 2149쪽.

신문 역시 관련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그의 동향에 주목하고 있었다.⁴⁰⁾ 이는 선통폐제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 혹은 생존을 위해 언론을 최소한의 정치·사회적 장치로서 이용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그의 활동은 '청조 황제'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으며, '만주족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어 만주족을 결집하여 독자적 정치 세력을 구축하고자 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말 황족의 분열과 더불어 선통폐제의 주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청조 유로 및 황실 인사들의 움직임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언론 및 조선 언론의 보도내용 차이, 선통폐제에 대한 1924년 이후부터 만주국 수립시기까지의 보도 등에 대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과제로 다루고자 한다.

40) 대표적인 기사는 다음과 같다. WORD has reached Shanghai from Tientsin to the effect that Mr. Henry Pu Yi, *The North-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927.2.19; THE "Eastern Times" publishes a telegram reporting that the Tientsin District Court has awarded judgment in favour of the plaintiff in the case of "Mr. Henry Pu YI"(Hsuan-tung, the boy Emperor) v. the Hsin Nieh Bank for the recovery of \$90,0000 which, plaintiff alleged, he had deposited in that institution., *The North-China Daily News*, 1929.10.22.

참고문헌

1. 사료

- 『申報』, 『盛京時報』
全國報刊索引 데이터베이스
『朝日新聞』, 『讀賣新聞』 데이터베이스
国立公文書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ミナー(JACAR) 데이터베이스
Late Qing and Republican-Era Chinese Newspapers 데이터베이스
溥儀, 1999, 『我的前半生』, 北京: 東方出版社
『鄭孝胥日記』, 1993, 北京: 中華書局
『紹英日記』, 2018, 北京: 中華書局

2. 국문

- 정상호, 2016, 「동아시아 공화(共和) 개념의 비교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50집 5호
정혜중, 2011, 「동아시아 신해혁명의 기억—『申報』, 『每日申報』, 『讀賣新聞』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6
지관순, 2022, 『中華民國 初期 ‘再儒化’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정선, 2012, 「근대중국의 공화제 실험과 제국일본의 동요」, 『중국근현대사연구』 53

3. 일문

- 後藤孝夫, 1987, 『辛亥革命から滿洲事變へ: 大阪朝日新聞と近代中國』, 東京: みすず書房
中下正治, 1996, 『新聞にみる日中關係史: 中國の日本人經營紙』, 東京: 研文出版

4. 중문

- 张力军, 2007, 「从嘉庆到宣统: 晚清政府新闻言论政策的演变」, 『怀化学院学报』, 2007年 01期
戴新宇, 2022, 「晚清民初“舆论”概念研究」, 武汉大学碩士學位論文
阿部由美子, 2007, 「張勳復辟と滿蒙王公の反応」, 『滿族史研究』 6

투고일: 2023년 03월 27일 심사완료일: 2023년 04월 10일 게재확정일: 2023년 04월 18일

■ Abstract ■

Revisiting Emperor Xuantong's (宣統帝) Publicity Strategy
: A Two-Period Analysis of Japanese Media Reports

Jeong, Se-ry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publicity strategy of Emperor Xuantong (宣統帝) after his departure from the palace in 1924 and the Restoration of the Qing Dynasty. They sought to maintain their presence and influence after leaving the palace through media exposure, donations, charity projects, and attending events. Despite the full transition to the Republic of China system at the end of the revolution, foreign media continued to report on the actions of the former emperor.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possible to speculate that Emperor Xuantong's publicity strategy in the 1920s relied on the positive image or interpretation of himself that had been established in media in the preceding period.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Japan became the head of Manchukuo because the existing internal and external image of former control system was not entirely negative. While the Chinese media's interest in the emperor in the previous dynasty may appear natural at first glance, but the Japanese media was not a direct party and cannot solely account for the establishment of former control system as the emperor of Manchukuo.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tendency and perspective of the Japanese media's reports on the preemptive control system during two distinct periods, from 1917 to 1924. This time frame includes the title's abolishment due to the political upheaval and abdominal wall failures from 1912 to 1917.

Key words: the Emperor Xuantong (宣統帝), the Asahi Shimbun (朝日新聞), the Yomiuri Shimbun (讀賣新聞), media reports